

나주시,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 성과보고회 개최

전문성과 대중성, 국제 교류 성과 공유...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포럼' 도약 발판

전라남도 나주시가 글로벌 에너지산업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향한 발판을 마련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9일 한국 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에서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추진위원회(위원장 문승일)를 열고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의 성과를 공유하며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켄텍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DDD 에너지 전환(분산, 직류, 디지털AI)'을 주제로 에너지와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에너지 혁신 전략을 모색했다.

위원회는 이번 포럼이 전문성 강화, 대중성 확대, 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 세계적 기후에너

지 석학 토마스 헬러 스탠퍼드대 교수, 신정균 래블업 대표, 김성철 한전KDN 연구원장,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한 포럼으로는 이례적으로 높은 국제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주목됐다.

또한 개막식 1000여 명을 포함해 이틀간 35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으며 이중 57%가 외지 방문객이었고 참가객의 94%가 "만족스럽다"고 답하며 재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대중 친화적 과학 포럼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 유튜브 '과학을 보자'와 협업해 제작한 시민 특강 영상은 이를 만에 조회수 43만 회를 기록했고 전남에너지산업협회와 베트남 다낭시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제 교류와 산업 협력 기반도 한층 넓히며 홍보와 교류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



다고 평했다. 위원회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언론 협업을 통한 인지도 확대, 해외 기관과 기업 참여 확대, 전시·세션·체험 프로그램의 세분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산학협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 산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 글로벌 에너지포럼 2025는 나주가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역량이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위원회의 조언을 반영해 포럼의 전문성과 산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포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진도군, 곱창김 전국 첫 위판 시작

진도의 청정바다에서 자란 '명품 햇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에 고군면 원포위판장과 회동위판장에서 물김의 첫 거래(위판)가 이뤄졌다.

가격은 한 포대(120킬로그램) 기준 32만 원에서 최고 61만 2천 원으로 형성됐다.

올해는 9월 중순의 수온이 평년보다 낮았다가, 10월 초에 약 2주 동안 수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급격한 수온 변화를 겪으며 초기에 김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10월 중순부터 수온과 영양염이 회복세를 보여 11월부터는 김

생산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는 지난해 13만 8,863톤을 생산해, 2,490억 원의 거래 실적을 올려 '전국 1위 김 생산지'의 명성을 지켜왔다"라며, "앞으로도 진도 김의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김 생산의 안정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 부표 설치, 김 양식용 활성 처리제 보급 등 10개 사업에 126억 원을 투입해 김 생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완도군, 기관·단체 협력 '재난 대응 훈련 실시'

대형 화재 및 싱크홀 발생 등 복합 재난 대비 훈련

완도군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2시,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2025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완도군을 중심으로 완도경찰서, 완도소방서, 육군 8539부대 2대대, 한국전력공사, KT, 대성병원, 해양환경구조협회,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청해어린이집, 완도군노인회 완도지부, 개포마을 주민, 자원봉사자 포함 총 11개 기관 및 단체

에서 200여 명이 참여해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진행했다.

올해 훈련은 다중 이용 시설 '대형 화재 및 싱크홀 발생' 등 복합 재난 발생을 가정하여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진행했으며,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재난 초기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훈련은 모의



훈련을 넘어 군민, 관계 기관과 함께 실전이라 생각하고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시간이었다"면서 "반복 훈련과 철저한 대응

이 재난에 대비하는 기본이므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장성군과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군정 상황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김한중 장성군수, 지역구 이계호 국회의원, 이영구 국회 정무실장,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당직자, 간부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군정 현안과 국가사업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으로는 5대 국정과제 건의 사

장성군-더불어민주당, 군정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댔다

31일 정책간담회... 당·정 상생 협력 및 국가사업 연계 방안 논의

업인 △건동광산 폐광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 △호남권 '국립산림레포츠센터' 조성 △백양사 관광지구 명품화 △전남·광주 상생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국립잔디연구소 설립과 '대한민국 명품숲 기념관' 건

립 등 5건의 국비 건의사업이 논의됐다. 이계호 국회의원은 "간동광산 데이터센터 구축 등 장성의 미래를 좌우할 군정 과제들이 국가 정책과 맞물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

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중앙정부 국정과제와 장성군의 핵심 현안을 연계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긴밀한 당·정 상생 협력을 통해 장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생충 감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감염률을 낮추기 위한 기생충 질환 예방 대책으로 실시한 '2025년 장내기생충 퇴치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화순군민 555명을 대상으로 한 장내기생충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내기생충 감염률*은

화순군, 장내기생충 퇴치 사업 추진... 감염 예방 총력

2.7%(15명)로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로 보였다. 또한 기생충별 감염률은 간흡충 2.3%(13명), 장흡충 0.4%(2명)로 나타났다.

장내기생충 감염은 인체 내 장기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고 소화불량

과 영양결핍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간흡충은 담도에 기생하면서 만성 염증과 담도 확장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담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발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화순군의 올해 장내기생충 퇴치 사업으

로 발견된 기생충 양성자(15명)는 무료로 처방약(프라지판탈) 투약 및 양성자 관리 시스템(Clo-Net)에 등록 관리하였다. 특히 간흡충 양성자(13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재검사(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에서 전원 음성이 나왔으며, 내년에 추가 검사 실시로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 관리를 추구할 예정이다.

화순/김중환 기자

토요일 축제 영암 로또데이, 지역경제 활력에 훈풍

4차례 축제 개최... 월출페이 매출 3배, 농특산품 등 2,270만원 판매

영암 청년과 군민이 함께 만들고 즐긴 토요일 축제가 지역경제 활력에도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암군이 7~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영암읍에서 4차례 개최한 로또데이가, 지역화폐 '월출페이' 결제와 농특산품 판매 등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인 것.

먼저, 로또데이가 있는 토요일 영암읍 월출페이가 가맹점 평균 결제액은 9,400만 원으로, 행사 없는 토요일 3,100만 원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했다.

로또데이가 있는 날이면 기존 15% 캐시백에 5%를 추가 지급하는 지역소비 촉진 이벤트도 이 결재액 증가에 한몫한 것으로 영암군은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영암군4-H연합회와 지역 농가의 협력으로 10월 로또데이에 첫선을 보인 청년퍼머마켓은 약 42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7~10월에 운영된 도시재생오피마켓 부

스는 1,850만원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한 달에 한 번 열린 토요일 축제가 골목상권을 포함한 지역경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고, 행사를 준비한 청년과 농가 등도 이런 상생의 경제 효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 로또데이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영암형 로컬브랜드 축제로 발전하며 '로또데이=즐거움 토요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청년문화, 도시재생, 지역상권이 상승효과를 내는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를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10월 영암로또데이는 이달 25일 가을 밤과 헬러원을 주제로 영암읍 달맞이공원과 매일시장에서 열렸고, 가족 미니운동회, 사일런트 디스코, 불쇼와 저글링 등 공연과 달빛시네마 상연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